

2021 THEME 믿음의 태도가 신앙의 고도를 결정한다

- I = Imaginative Ministry [창의적 사역]
- M = Making Disciples [제자 양육]
- P = Passionate Worship [열정적 예배]
- A = Action for the Gospel [복음의 실천]
- C = Community Outreach [이웃 섬김]
- T = Training Missionaries [선교사 양성] & Transforming the World [세상을 변화시킴]



담임목사: 김한요
Rev. Bryan Kim, Lead Pastor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el: 949.854.4010 ◆ www.bkc.org ◆ bethel@bkc.org

각 교육부 및 그 외 주일예배 안내



- 유아부(2-3세) / 본당 2층 영아부실, 온라인 11:00AM
- 유치부(4-5세) / 유치부실(구식당), 온라인 11:00AM
- 유년부(1-3학년) / 임마누엘, 온라인 11:00AM
- 초등부(4-6학년) / 체육관, 온라인 11:00AM
- 영어중등부(BYM Jr.) / 비전채플, 온라인 11:00AM
- 영어고등부(BYM) / 비전채플, 온라인 9:00AM
- 한어중고등부(CIM) / 살롬채플, 온라인 11:00AM
- 소망부(장애인) / 온라인 11:00AM
- BETHEL GRACE CHURCH / 비전채플, 온라인 2:00PM
- 日本語 礼拝 / 임마누엘채플, 온라인 1:15PM

담임목사 방송설교 안내

- 케이블TV 방송 (CTS America):
TV DirecTV 채널 2092 · 공중파 채널 18.8
화요일/오후 8시 30분 · 목요일/오후 1시
- TV 방송 (미주 CGN TV):
TV 채널 31.9 · 화요일/오후 2시
- 라디오 방송 (GBC 미주복음방송):
주파수 AM 1190 KHZ · 금요일/오후 1시

주 일 예 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1부 예배 | 7:00AM 2부 예배 | 9:00AM 3부 예배 | 11:00AM 4부(청년) 예배 | 2:00PM

-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Presider **예배 인도사**
- *신앙고백 The Apostles' Creed 사도신경 All together **다같이**
- *찬양과 경배 Praise & Worship Bethel Worship **베델 워십**
- 영상광고 Media Announcement Media **방송실**
-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1, 2, 3부/마태복음 16:15-20 All together **다같이**
4부/사무엘상 1:1-28
- 말씀 Message 1, 2, 3부 Rev. Chul Lee **이 철 목사**
- 주님의 교회**
- 4부 Rev. Abel Kang **강문구 목사**
내 인생의 전성기
- 적용찬양 Song in Response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말씀 앞에서

- *결단찬양 및 봉헌 Song of Commitment & Offering All together **다같이**
1, 2, 3부/믿음 in '21
- *축도 Benediction Rev. Chul Lee **이 철 목사**
- *표는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 ★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가 동시통역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www.bkc.org)
- ★ 교회학교 예배가 온라인으로 제공됩니다.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목회자 칼럼
Pastor's Column

무관중 경기

Race without Spectators



주성필 목사 / Rev. Peter Joo

코로나 팬데믹 여파로 1년간 미뤄졌던 2020 도쿄 올림픽이 지난 7월23일에 개막되었습니다. 207개국 1만여 명 선수들이 각각각색의 마스크를 쓰고 화려하게 입장하였지만 역대 올림픽 중 가장 조용한 개막식으로 기억될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번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딸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최고의 스타 선수들이 고전하면서 이번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회에서 30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찬사를 받아온 '미국의 체조 여왕 시몬 바일스'가 기계체조 단체전 경기에 출전해 도마 한 종목만 뛰고 기권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바일스는 기자회견에서 "때로는 정말로 어깨에 온 세상의 짐을 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올림픽은 장난이 아니거든요"라고 말하며 정말 큰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정신적 안정을 위해 물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번 사태의 원인으로 '코로나 19 팬데믹'을 지목하며 개최가 1년 늦어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선수들에게 심적 압박이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1년간의 고립된 훈련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뀐 경기 환경 특히, 무관중 경기야말로 선수들에게 가장 큰 압박이 되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선수에게 관중은 단순히 멀리서 자신의 경기를 바라봐주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를 펼 힘을 주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고, 관중에게 선수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을 쏟아 힘껏 응원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되나 봅니다.

이렇게 도쿄에서 무관중으로 올림픽 경기대회가 치러지는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협력하고 있는 도쿄 비전교회에서는 영어 캠프와 VBS(여름성경학교)가 열렸습니다. 비록 예년처럼 직접 방문하여서 함께 하지는 못하였지만, KM, JM, EM, BYM, 교회학교가 연합하여 처음으로 온라인 리모트 선교로 진행되었습니다. 교회학교 VBS를 위해 제작된 영상에 일본어 자막을 입히고, 현장에서 사용할 물품들을 박스에 담아 소포로 현지에 보내고, VBS를 한 주 앞두고서는 매일 저녁 본격적으로 강민숙, 변선영 선교사님과 일본의 어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모임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VBS 첫날과 마지막 날 일본 시각에 맞춰 온라인 영상으로 직접 연결하여 서로의 안부를 나누고, VBS 기간 내내 매일 아침 선교사님을 향한 격려의 메시지도 영상으로 담아 보냈습니다. 선교사님은 우리 힘의 원동력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더욱더 전력을 다해 뛰었고, 베델은 우리의 전부를 쏟아부을 수 있는 구심점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며 최선을 다해 힘껏 응원하였습니다. 무관중 속 올림픽과는 달리 비전교회의 여름성경학교 열기는 여느 때 이상으로 뜨거웠습니다.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의 금메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원하며, 내년에는 현장에서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Tokyo Olympics that was postponed a year due to Coronavirus pandemic opened July 23rd. Some 10 thousand athletes from 207 countries made elaborate entrances into the arena, wearing many different colored masks. It is clear that this opening ceremony will be remembered as the quietest one. In this Olympics, many of the top athletes expecting to win gold medals are struggling and unexpected results are being made. Simon Biles, Queen of U.S. women's gymnastics, who received 30 medals from world competitions and Olympics, including accolades as the greatest athlete in history, dropped out after one event in team gymnastics competition. "I truly do feel like I have the weight of the world on my shoulders at times. Olympics is no joke." Biles said during her press conference and revealed that she decided to drop out due to her mental health concerns.

With this incident, the Wall Street Journal pointed the source to 'Coronavirus pandemic'. They analyzed that this caused tremendous mental pressure on athletes with just the fact that it was postponed a year. To train in isolation for a whole year in this uncertain situation surmounted to reaching extreme stress level. Especially, changes in race venue situation and competing without spectators were probably the greatest pressure for these athletes. For athletes, spectators are not just people watching from afar, but they are the source of strength for their races. For spectators, athletes are not just people who gives them moment of joy but main focus for cheering with all their hearts.

While Tokyo Olympics is proceeding without spectators, Tokyo Vision Church, our mission support church, opened English Camp and Vacation Bible School. Our mission team was not able to be there in person like before. Instead, it was an online mission with collaboration between Bethel KM, JM, EM, BYM, and Church School for the first time. We added Japanese subtitles to the videos made for our church's VBS, and sent supplies for them. A week before VBS, we prayed every night with Missionaries Kang Minsook and Byun Sunyoung for souls of Japanese children. Then, on the first and last days of VBS, we connected with them online to Japanese time to share greetings. During VBS we sent daily video messages of encouragement to missionaries. Receiving strength from Jesus, the missionaries focused in Him with all their hearts to run the race. Bethel mission team relied on Jesus as center, who is our all, and did their best to cheer on. Unlike Olympics without spectators, the Vision Church's VBS opened with passion beyond all other times. We want to give glory to God with eternal gold medal that is more precious than anything in this world. We look forward to being with the Vision Church in person, hopefully next year.

베델 45주년 특집 (1)

그토록 사랑하신 주님

올해는 우리 교회가 베델 한인 교회라는 이름으로 설립된 지 45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도님들과 함께 지난 45년 베델의 역사를 돌아보며 다가오는 미래, 우리에게 베푸실 주님의 더욱 큰 은혜와 주실 꿈을 기대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개척기>

라구나 힐스, 레이크 포레스트 등 예배 장소를 옮겨가며 30명의 교인으로 시작하여 100여 명으로 늘었으며, 1981년 Irvine Worship Center(IWC)에 베델 교회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1977년- 여전도회 발족, 어린이 주일학교 시작, C&MA 교단 가입, 교회 헌법 제정, 윤용오 목사 초대 담임 인준, 제직회 시작.

1978년- 모국선교, 남전도회 발족.

1980년- 예배 장소 이전, 토요 성경 연구반 개설, 추수 감사절 한미합동 친교 연합예배.

1981년- 베델 한글학교 발족(현 베델 한국학교), 교회 건물 부지 매입(현 교회 주소)

<정착기>

1982년- 백태현 목사 2대 담임으로 부임. 초대 선교사 파송.

1985년- 헌당식 예배, 수요일 예배 시작.

1989년- 주일 3부 예배 시작, 홈리스 사역 시작.



홈리스 사역

<성장기 I>

1990년- 손인식 목사 3대 담임 목사로 취임.

1991년- 임마누엘 성경 대학 시작(현 MIT와 시니어 사역), 1회 베델 선교대회(현 미션의날) 시작, AWANA 시작, 1차 베델동산

1992년- 전도폭발 훈련시작, 교회 건물 매입(현 BGC 채플), 주일학교 할렐루야 밤(현 Family Fall Fest)을 시작.

1994년- MOD 사역 박람회와 1차 부부동산 시작.

1995년- 베델뉴스지 창간, 해외(중국) 베델동산 개최, 제1회 입양아 가족 선교대회.



베델뉴스지



MOD 사역 박람회



AWANA



부부동산

<성장기 II>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내부 운영체계를 재정비하여 독자적인 성장 모델을 구축한 시기로 2세대의 교육을 위한 비전센터를 건축하여 성장 기반을 완성하였습니다.

1997년- 1차 순결 서약식, 열린 예배 시작(현 3부 예배), 셀예배와 공동체 사역 시작(현 셀/목장 모임), 영어 성인부(현 BGC) 설립.

1998년- 교회 홈페이지 개설, 실행위원회와 프로젝트 팀장제 도입.

1999년- 1차 교회 성장 실험교실 개최, 베델 수

양관 입주 예배, 1차 베델 결혼 교실, 비전센터 기공식 예배, 1차 임마누엘동산, 1차 싱글 동산(현 Beyond the Blue) 시작.

2000년- 돌탕 전도대회, 새가족 환영 만찬 시작, 향아리 전도부대, 고구마 전도단, 베델 경로잔치 시작.

2001년- 비전센터 헌당 예배, 주일 예배 4부 확장.

2002년- 교사 훈련교실.

2003년- 베델카페 오픈, 복한을 위한 촛불 기도회, 부자동산, 모녀동산, 1차 부부축제, 영어 성인부(현 BGC)와 영어 대학부 통합 등의 다양한 행사와 사역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전센터 헌당 예배



베델 경로 잔치



베델 수양관



싱글 동산

<다음 주 주보에 계속>

일본어 예배/야유회

주님의 능력 시작되었네



7월 17일 토요일, 교회 근처 메이슨 파크에서 일본어 예배부에 전도 대상자들을 위한 피크닉을 가졌습니다. 작년 3월,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은 거의 일 년 반만의 일이었습니다. 평소에 온라인으로만 예배하던 분들도 오랜만에 만날 수 있어서 반가웠습니다.

좋은 날씨 속에서 참석한 분들의 자기소개, 친목 도모를 위한 게임과 '꽃들도'라는 찬양으로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은혜 가운데 가졌습니다. 일본어 예배는 손목사님을 비롯해 모든 분이 마치 가족 같은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매주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친목회 등이 계기가 되어 더 많은 일본인과 일본에 관심 있는 분들이 나와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일들이 많아지도록 열심히 기도 해야겠다고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일 아침 일찍부터 이벤트를 위해 준비해 주신 분들, 음식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를 해 주신 분들, 즐거운 게임을 준비하고 진행해주신 분들, 찬양하고 기도해 주신 분들, 많은 손님을 초대하고 모셔온 분들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각각에 역할을 주시고 모두 함께 즐겁게 지내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이 믿지 않던 저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처럼 이번에 참석하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인

도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료코 이시아마 집사

작년 한 해 팬데믹으로 개최될 수 없었던 선교 행사 중 하나인 일본어 예배 피크닉을 기분 좋은 날씨로 축복받은 가운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최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운 내용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예루살렘에서 담대히 말씀을 선포했더니 삼천 명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배운 후 첫 교회 전도 이벤트였기에 이렇게 빨리 실재를 하게 되다니 라고 생각하면서도 교회 행사에 초대한다고 친구들이 꺼리지는 않을까 하는 우려와 긴장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초대 받은 다섯 명의 친구들이 모두 멀리 토론펬스에서 와서 참석해 주었습니다. 코바야시 팀장님이 기획한 재미있는 퀴즈 놀이, 일본어부 모든 분이 준비해 주신 너무나 훌륭하고 맛있는 식사로 친구들은 아주 기뻐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는 것이 저에게도 큰 기쁨으로 다가왔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이 친구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기도하는 것이 선교에 참여하는 한 방법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이제 얼마되지 않는 제게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의 본질과도 같은 가르침을 주신 하나님의 완벽하심에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초지 나요코 성도



카페사역

“핫 아이스 커피요~”는 ‘아이스 커피’지요..

새로 단장한 베델 카페와 교회 뜰에서 성도님들을 만나 주 안에서 쉼과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베델 카페 사역팀은 팀장 집사님의 열정적인 리더십과 섬김으로 주일에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을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 섬기는 마음 하나로 기쁘게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예배를 통해 주신 말씀의 은혜와 감동이 카페에서 제공되는 고급스럽고 풍미 가득한 다양한 커피에 고스란히 녹아내려, 서로에게 회복이 있는 따뜻한 나눔과 교제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도록 카페 사역팀은 마음을 함께 하고 있으며, 매 주일 맛있는 먹거리로 카페를 더 풍성하게 섬겨주시는 재능기부 천사들의 손길에도 감사드립니다. 서로를 대접하며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임을 알게 하시니 이 또한 감사한 일입니다. 주일 예배 후 말씀의 감동을 안고 우리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값없이 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서로 나누고 축복하는 귀한 시간을 베델 카페에서 계속 이어가기를 소망하며, 베델의 모든 성도님들을 달달한 베델 카페로 초대합니다.

이성애 권사

힘들고 답답했던 어려운 시간을 지날 즈음, 교회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저 바라만 보았던 섬김의 자리인 카페 봉사 경험은 제 삶에 새로운 활력을 선사해주었습니다.

성도님들과 나눌 수 있는 인사가 고맙고, 웃으면서 함께 봉사하는 동역자들에게 감사하고, 새로운 기쁨과 힐링에 행복을 느낍니다. 또다시 깨닫는 것은 참된 주님 안에서의 기쁨은 받아서가 아니라 내어 드림에서 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조그만 사역을 통해 그 크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오늘도, 내일도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정지은 집사

카페 봉사를 시작하면서 주님 안에서의 섬김과 나눔, 교제의 유익을 알게 하셨습니다. 매주 성

도님들께 드릴 따뜻한 커피를 만드는 일이 행복합니다. 커피 향보다 진한 예수님의 향기 가득 담아 한잔 한잔 정성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아끼고 배려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카페 봉사자로 사역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봉사자의 기쁨으로 리셋!

최은영 집사

카페 봉사를 하면서 바보라는 것을 또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서 O, X 문제가 제일 어렵고, 고속도로에서 쭉벌 길로 진입, 집에 가는 길도 턴 레프트? 라이트? 핫갈리더니 카페에서도 여전합니다.

주문이 몰려오면서 오늘도 압박감은 최고조! 패닉에 가까운 이 순간들을 어떻게 넘기는지가 저 에겐 그날 봉사의 성패를 가릅니다.

방금 주문하신 커피가 핫? 아이스? 옛갈리는데,

"권사님, 핫이라 하셨지요?"

"핫? 아이스라고 했지, 아이스!"

제 의식의 흐름이 POS 기기로 순간 이동 하면서 주문도 바꿉니다.

"아, 네, 핫이요! 두 잔 들어갔고요, 다음 분요!"

폭염이 찾아온 이 여름 우리 권사님께도 예비치 않게 찾아온 오! 핫! ... 뜨거운 내려놓음으로, 용서와 사랑이 넘치는 카페가 됩니다.

주일 새벽 카페차 문을 열고 이달의 찬양을 위해 고른 CCM을 틀어놓고 오늘의 커피맛을 혼자 시음합니다. 음~ 좋다! 그리고 그 찬양은 어느 해 베델 동산에서 주님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한참이나 눈물짓던 그때 그 찬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그 사랑 잊고 살았던 이 바보스러움을 일깨워주는 커피 봉사를 저는 사랑합니다.

한종국 집사



교육부 / BYM Jr.

선택과 집중(CHOICE & FOCUS)

예전처럼 교회에 나가 신앙 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은 요즘, 성경에 눈이 가기보다는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에 눈이 가고, 기도 생활도 어렵게만 느껴졌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도 산만한 주변이 눈에 들어오면서, 정말로 사탄이 예배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의 신앙 상태를 잘 알고 계시는 주님은 이런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드디어, 교회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직접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정말이지 저에게 엄청난 에너지가 되었습니다. 다니엘 전도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매주 금요일 저녁 운동을 겸한 제자훈련 시간은 제가 정말 기다리던 시간이

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제자 훈련을 받고, 함께 저녁을 먹고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다니... 믿기 어려운 사실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확실히 새겨졌고, 그때 주님은 제가 믿음의 방향을 주님께로 고정하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셨습니다. 저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저를 향한 구원 사역을 펼쳐가실 것을 저는 압니다. BYM 중등부에서 신앙 생활을 회복할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Isaac Kwon(7학년)

현장 예배가 시작되면서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던 저는, 중등부에서 스포츠와 제자훈련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듣고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스포츠 시간에는 팀을 나누어 경기하며 서로 "승리"를 향해 열심히 뛰었습니다. 제자훈련 시간에 다니엘 전도사님이 다윗왕 이야기를 전해주시는 때,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졌고, 저의 생각과 마음은 주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듣는 시간 시간마다 제가 꼭 들어야 하는 말씀, 제게 꼭 필요한 말씀들로 가득 채워 주셨습니다. 현장 예배만도 큰 기쁨이었는데 스포츠와 제자훈련은 정말 재미있는, 잊지 못할 시간이었습니다.

Sophia Lee(7학년)



나 어디 거할지라도

**나 어디 거할지라도
주 날개 나를 지키네
그 그늘 아래서
난 주님을 노래하네 외롭고 험한 길에
내 믿음 연약해져도
기다려 주실 수 있는 주님
늘 나의 곁에 계시며 내게 말씀하시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넌 두려워 말라
나 사랑하리 당신을 신뢰하리 그 마음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나 숨 쉬는 동안
나 사는 날 동안 주님**

나의 믿음은 느리고 답답합니다. 평소의 급한 나의 성격으로 볼 때, 믿는 순간 "보라 새것이 되었다" 하며 확 바뀔 것 같은데, 어쩐지 믿음만큼은 너무나도 더디 자랍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주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내어 드리지 못해 세례를 받기까지 18년. 하나님께서는 안가겠다고

쓰는 어린 나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이곳 베델에 오게 하시고 세례받게 하셨습니다.

그토록 오래 걸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눈물로 엎드려 회개하고 거듭난 삶을 받았을 때, 오직 주님의 사랑 외에는 바라지 않겠노라, 다른 것은 구하지 않겠노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어느덧 세상일에 일희일비하며, 세상 것을 구하며, 남을 판단하는 나의 모습 때문에 실망하며 회개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그럴 때마다 나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내 인생의 변곡점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던 증거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세상 헛된 것을 구하고자 하면, 오래도록 참으시고 기다려 주신 것도,

그런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가 처해있는 상황은 그리 큰 문제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 곡을 처음 접한 2015년 봄. 제가 1년 넘도록 직

장을 잡지 못해 한국으로 귀국할까 고민하던 시기였고, 어쩌면 직장 문제보다 교회를 떠나야 하는 것이 더 걱정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즈음에 이 곡을 배우며, 내가 어디에 있든지, 혹은 어디로 인도받든지,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데... 하며 위로를 받았습니. 나 어디에 거할지라도 사랑하는 주님을 신뢰하며,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해 주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박지경 집사



담임목사: 김한요 목사

◎목회자◎

- 기획/행정: 정승락 목사
- 민음 목장/예배/목회지원: 김형균 목사
- 소망 목장/선교: 주성필 목사
- 사랑 목장/훈련/베델뉴스/기도: 이충경 목사
- 은혜 목장/전도/이웃사랑: 김홍식 목사
- 화평 목장/세월위식/샬: 박경철 목사
- 새가족/경조: 한순교 전도사
- BGC: Justin Kim 목사
- BGC(Family): Dan Nam 목사
- BGC(College/Worship): Peter Lee 전도사
- 일본어 예배/헬시바: 송은주 목사
- 예삼채플(총괄): 강문구 목사
- 예삼채플: 서찬석 목사
- 예삼채플: 김유미 전도사
- 영어고등부: 여옥제(John) 목사
- 영어중등부: 현호승(Daniel) 전도사
- 한어중고등부: 이형석 전도사
- 교회학교 디렉터: 이진아(Jinah) 전도사
- 초등부: 김은정(Jamie) 전도사
- 유년부: 장지은(Jieun) 전도사
- 유치부: 이승진(Sharon) 전도사
- 유아부: 정가영(April) 전도사
- 소망부: 박정민 전도사
- Beyond the Blue: 이관해 전도사
- 통역/제자반: 이앤드류 전도사

◎성가대 및 찬양팀◎

- 지휘자: 박정영, 차은하, 이사무엘
- 오케스트라: 박정영
- 피아노: 신현진, 지지영, 한현미, 이해경
- 오르간: 이정은, 이해경, 박정연
- 솔리스트: 최정원
- 뮤직디렉터: 정봉화

◎사역 간사 및 인턴◎

- 의료상담: 이강민 전도사
- 한어권: 정티나 간사
- 한어중고등부: 김소영 간사
- 영어중고등부: Grace Park 인턴

◎교회 직원 및 간사◎

- 사무장: 마현진
- 건물/차량관리: 김유호
- 사무실: 인현미, 박성혜
- 재정실: 이수민
- 방송실장: 박주남 전도사
-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음향: 최철기
- 음향: 강창위
- 방송실: 최중형, 김지현
- 디자이너: 박선경
- 웹: 김정아
- 수양관: 오춘란

사역광고

베델 공모전 “칭찬합시다”

코로나 숲을 뚫고 나온 베델 성도들에게 다시 시작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역경을 이겨내고 새롭게 기쁨으로 리셋하고자 하는 기대감으로 가득 차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매 주일이 감사함과 기쁨으로 채워지고 있는 베델 "기쁨으로 리셋", 그 시리즈의 일환으로 시즌1 "칭찬합시다" 원고를 공모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칭찬으로 가르치신 흔적이 복음서 몇 군데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던 나다나엘을 향해 칭찬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요 1:47) 그리고 종의 치유를 청하는 따뜻한 마음의 소유자 백부장에게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마 8:10) 라고 칭찬하셨습니다. 미국 현대문학의 효시이자 대부인 동시에 탁월한 정치사회비평가였던 마크 트웨인(1835-1910)은 칭찬의 효과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칭찬 한마디에 나는 두 달을 기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리나라는 칭찬은 칭찬을 받는 사람의 마음을 넓혀주고, 마음속에서 새로운 불꽃이 솟아오르게 하는 상대방에게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 될 것입니다.

칭찬이 주는 힘과 긍정의 에너지로, 어두웠던 코로나 우울증에서 벗어나 서로를 칭찬하며 기쁨과 은혜의 꽃을 피우는 베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공모 참여 방법〉

- ▶ 응모 기간: 8월 1일(주일)부터 8월 20일까지
- ▶ 칭찬 대상: 베델 성도
- ▶ 원고 분량: 워드 120단어 정도의 내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 보내실 곳: bethelnews@bkc.org
- 또는 교회 사무실로 원고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유미경 권사 (949)422-9046



예배 봉사자

강단꽃(8월) | 8/1: 김재석, 이태형 8/8: 정경애, 현승원 8/15: 김유민, 윤주원, 조현지, 최하자

선교후원

- [팍송선교사] 창의적접근지역 | 손승욱, 김진영(김은경), 이바나바(옥소리), 장과장(주열매), 호세아(그사랑), Nader(Dina), Yeshua 루마니아 | 서형렬(서정희) 조지아 | 김현수(고봉주) 캄보디아 | 황순현(황현주)
- [협력선교사] 과테말라 실버 | 유한성(유영옥) 기니비사우 | 유요한(글로리아) 니카라과 | 박우석(이현숙) 이스라엘 | 장이삭(정인나) 멕시코 과달라하라 | 허익현(김영중) 몽골 | 을지바트(민애령), Kathy Ribbs 베트남 | 성결(양선) 온두라스 | 이동철(이순미) 우간다 | 박민수(이순영) 일본 | 강민숙(변성연) 캄보디아 | 김우정(박정희) 코스타리카 | 금상호(김미경)
- 탄자니아 | 황광인(황영숙) 태국 | 박상선(신영선) 필리핀 | 김송봉(유영선)
- 창의적접근지역 | 류진, 온세상, 이희숙, 차은경, 김예평(길진명)
- *선교기관 | 나눔선교회, 네이버스선교회, 멕시코 장로회 신학교, 밀알선교회, 바실레리아 신학교, 한미가정상담소, GP미주본부, Good News Spreaders(GNS), JAMA, NAUH, New Hope 선교 유치원, Silk Wave Mission, The Center for BAM(CBAM), The Gospel Coalition(TGC)
- *특별선교 | 복음방송(GBC), CTS, CGN TV
- *문서선교 | 기독교일보, 미주 크리스천 신문, 크리스천 위클리

베델 알림판

Bethel Announcements

◆ 감사의 말씀 오늘 주일 예배에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시는 이 철 목사님(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강릉중앙교회)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선교작정 헌금(매월 첫째 주일) 오늘은 각 성도님께서 올해에 작정하신 선교헌금을 드리는 날입니다. 선교헌금 봉투는 교회 사무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선교헌금'을 선택해 주세요.

◆ 주일 및 토요 헬스바 현장 예배 신청 안내 베델교회는 온라인과 현장에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신청은 매주 화요일 새벽 5시 30분에 카톡 채널을 통해 발송된 예배 신청 링크와 교회 홈페이지(bkc.org)에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 주일 성인 및 예살 예배, 토요 헬스바 기도회 신청: checkin.bkc.org

- 교회학교 예배(유아-고등부) 신청: checkin.bkc.org/school

*부서가 다른 자녀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부서별로 각기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교회 주차장 진입 안내 최근 교회 강변 트레일 도로 공사로 인하여 많은 자전거와 보행자들이 우회하여 교회 주차장 입구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 주차장 진입시 매우 위험한 가운데 있으니, 성도님들은 주일 또는 주중에 교회 주차장 진입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봉사자 주차안내 현장 예배 인원이 늘어남에 따라 2,3부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이에 2,3부를 섬겨주시는 식당팀, 예배 안내팀, 새가족팀, 주차팀, QR팀, Cafe 팀 외 봉사자들은 University Synagogue에 주차하시고 교회에서 수시로 운영하는 미니밴을 타고 교회로 오시길 부탁드립니다.

주차하실 곳: University Synagogue, 3400 Michelson Drive, Irvine, CA 92612

문의: 흥대원 장로 (714)335-3300, 진정훈 집사 (714)318-2183

◆ 수요 특별 기획 "예수아" 수요 프로젝트 "예.수.아"(예수님과 함께 하는 수요일 아침)가 찬양과 삶의 이야기를 담은 형식으로 제작되어 방영중에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4일)에 방영되는 6회 예수아는 1-5회 까지 예수아를 통해 불러졌던 찬양들을 편집하여 보내드리고 7회부터 다시 게스트와 함께 방영을 하게 됩니다.

◆ 몽골 예살 온라인 단기선교 몽골에서 참사랑 교회를 섬기시는 을지바트, 민애령 선교사님과 온라인으로 함께 동역하며 섬기는 예살 몽골 단기선교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강문구 목사 (949)506-6905

◆ 미디어 리셋 캠프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디어가 우리 자녀들의 생활의 주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많은 자녀들이 미디어속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미디어를 어떻게 분별해야 할지 배우고 훈련받는 캠프에 자녀들을 초대합니다.

등록 기간: 8월 1일(주일)-8월 15일(주일)

등록: 교회 홈페이지 www.bkc.org

대상: 4학년-8학년 (현재 학년)

캠프 기간: 9월 29일-10월 24일 (매주 주일 오후 12시 30분- 3시)

문의: 안지호 집사(949)241-1807

◆ 베델 클래식 아카데미 2차 등록 성경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기독교 고전 교육을 제공하는 Bethel Classical Academy는 2021년 8월 23일 개교합니다. 이번 2차 등록은 학생들이 2021-2022학기를 저희와 함께 시작할 수 있는 마지막 등록 기회입니다! 신청과 등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 대상: 유치원부터 초등학교 5학년까지

신청 기간: 7월 17일(토)-8월 1일(주일)

등록 방법: 온라인 <https://forms.bkc.org/PrivateSchool>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링크 이용

등록 비용: 온라인 등록 Fee \$20과 학교 등록비 \$350

(인터뷰 이후 admission이 허가되지 않으면 \$350 환불 가능)

문의: 강수민 Assistant Mgr. (949)303-3535, bethelclassical@gmail.com

BCA 홈페이지 <https://bethelclassical.org/irvine/>

◆ 베델 공모전 "칭찬합시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칭찬이 주는 힘과 긍정의 에너지로, 서로를 칭찬하며 기쁨과 은혜의 꽃을 피우는 베델이 되기를 기대하며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 기대합니다. (7면 참조)

문의: 유미경 권사 (949)422-9046

◆ BYM Jr. High "Wilderness Retreat" BYM 중등부에서 1박 2일 동안 "The Wilderness(광야)"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중등부 학생들이 이 기간 동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회비: 8월 30일(금)-8월 31일(토), 비전채플, \$60

문의: Daniel Hyeon 전도사 (949)677-4911, 천승현 집사 (512)947-7291

◆ BYM HS 고등부 여름 수련회 BYM 고등부에서 "Firm Foundation"라는 주제를 가지고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모든것이 변하고 불안정한 이 시대에, 변함 없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마련합니다. 자녀분들의 많은 등록 바랍니다.

기간/시간/장소: 8월 11일(수)-8월 13일(금), 오후 3시-10시, 비전채플

등록 마감일: 8월 6일(금)

등록처: BYM 홈페이지 bethelunited.org/retreat

문의: John Yeo 목사 (818)270-5454, 김학남 집사 (408)806-4133

◆ CIM 여름 수련회 한어중고등부(CIM)에서 2박 3일간 The Cross(십자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많은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간/장소: 8월 5일(목)-8월 7일(토), 갈릴리 수양관

회비: \$120 (한 가정 두 명 신청시 \$100)

문의: 이형석 전도사 (714)944-8339

◆ 교회학교 교사 모집 교회학교에서 교사분들을 모집합니다.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함께 다음 세대를 세워갈 신실한 교사 분들을 찾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모집 부서: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소망부

문의: 각 부서 전도사

베델뉴스 편집위원

- 발행인: 김한요 담임목사 ■ 편집장: 유미경 권사 ■ 사진: 박상근 장로, 최경호 집사
■ 기자: 강수연 자매, 김선홍 권사, 김지연 집사, 김휴리 집사, 박인주 집사, 박정원 집사, 박진아 권사, 안예진 집사, 최경희 권사, 허성숙 집사, 황수정 집사

◆ 베델뉴스 원고파일은 bethelnews@bkc.org로 보내주세요.